챌린지·디지털 문해로 진화하는 기부

〈문자해독능력 배양〉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랜선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활발하게 랜선기부 영역을 개척하는 곳을 벤치마킹 하는 것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① 모바일 릴레이 챌린지로 청년층 유도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곳은 국내 최대 기부처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 사랑의열매는 최근 각종 인플루언서를 동원, 틱톡과 유튜브 등 SNS에서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로부터 각광받는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을 활용해 배우 이성경 씨의 팬미팅 이벤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데 나섰다. 방법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이성경의 틱톡 영상에 이어찍기 기능으로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넣거나 영상 음원을 사용해 모델 워킹을 찍고 해시태그를 붙여 챌린지에 참여 가능하다.

불교계에서는 아름다운동행이 SNS를 활용한 챌린지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2015년 저소득가정을 위한 연탄지원 캠페인 '아이연탄맨'은 불교계에서 보지 못했던 릴레이 추천 방식의 기부를 도입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릴레이는 지명을 받은 사람이 손바닥에 연탄 모양을 그리거나 붙인 뒤 사진을 찍어 이웃에게 전송하고 연탄 다섯장 비용인 3000원을 ARS나 모금계좌를 통해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전개됐다.


2016년 진행된 아름다운동행 아이연탄맨 챌린지. SNS를 통한 랜선기부와 오프라인 기부의 조합으로 큰 반향을 이끌었다.

소액 기부와 SNS를 통한 방식에 스님 등 불교계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청년회 회원, 불자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그동안 사찰이라는 환경과 현물기부라는 형식에 치중됐던 불교계 기부를 한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SNS챌린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인지도가 높은 불자 인플루언서와 파급력이 높은 SNS플랫폼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② 어르신 모바일 기부 접근 높여요

불교계가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도 2007년부터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청과 배화여자대학교 등 민·관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교육, 문해교육, 키오스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별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가 각각 콘텐츠를 생산·활용·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에이징 똑똑 사업'을 추진 중이다.

③ 카카오로 진출한 사찰

해인사 말사인 함양 문수사의 경우 기부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에 사찰을 등록하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채널로 소식을 올리고 있다. 주지 하륜 스님은 "25년 기독교인으로 살던 서울토박이가 합천 해인사로 출가해 지리산 산속 사찰 주지를 맡아 좌충우돌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며 "현재는 죽음 앞에서 떠나는 자와 남겨진 이들이 두려움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불교웰다잉포교를 원력으로 수행정진중이다"고 전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전통문화 사회적기업 마인드디자인의 경우도 전통문화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올리며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후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진짜 명품, 한국의 전통공예 기술!'을 주제로 전통공계 기술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 청자로 유명한 강진탐진청자 김보미 작가로 젊은 청년작가의 열정을 후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총 10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식혜가 아닌 식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란 내용으로 해피빈 기부를 받고 있다. 당뇨병을 앓는 장애인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평범한 삶에 대한 중요성과 주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측은 "기부에 있어서 공감을 이끄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이용하는 건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다.

칠장사 괘불탱, 배채법 유일 활용 확인

성보문화재硏와 문화재청
대형 불화 7건 조사 담은
정밀 조사 보고서 발간해
칠장사 괘불탱 금니 사용
옥천사괘불 보물지정 성과

국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이 현존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배채법이 활용·조성됐다는 사실이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과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대형불화인 괘불탱 정밀조사 사업의 2020년 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사업 시행 후 6번째 발간된 보고서에는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탱(국보 제299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국보 제296호)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제1256호)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57호) △축서사 괘불탱(보물 제1379호) △오덕사 괘불탱(보물 제1339호)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보물 제2108·2109·2110호) 등 총 7건의 대형불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와 채색 정보, 관련 유물의 원형 자료와 보존 현황 정보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국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부분.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현존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바탕색에 배채법이 사용되고, 금니·금박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자외선-가시광선 반사 분광 분석을 적용한 청색과 흑색 유기 색료 해석 등 채색 재료 분석 데이터와 바탕 직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으며, 목재 궤에 사용한 철물 장석의 분석 결과를 새로이 담아 정밀조사의 연구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정밀조사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괘불탱 조성 방법들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이다. 조사를 통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은 현존하는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바탕색이 '배채법(背彩法, 종이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은은한 느낌이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화법)'으로 처리됐으며, 일부분이 금박과 금니로 채색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얇은 비단인 '초'를 일반적인 전통 직물의 폭보다 넓게 짜 제작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보문화재연구소는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의 새로운 조성 기법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17세기 불화 채색 기법과 직물 제직 기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의 복식 문양을 표현 기법도 새롭게 확인됐다. 일명 돋음 기법으로 불리는 '고분법(高紛法)'이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복식 문양에 사용됐는데, 그간 17~18세기 조성 괘불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기법이었다.

올해에는 △갑사 삼신불 괘불탱(국보) △금당사 괘불탱(보물) △율곡사 괘불탱(보물) △운흥사 괘불탱 및 궤(보물)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함(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7건을 대상이며, 3월 22일부터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문화 소통과 자비 도량 만들터"

서울 삼룡사, 3월 14일
무원 스님 주지 진산식

천태종 종의회 의장인 무원 스님이 천태종 서울 동부지역 포교 거점 사찰인 삼룡사 주지에 취임했다. 삼룡사는 3월 14일 오전 11시 제 17대 주지 무원 스님의 취임법회인 진산식(晉山式)을 3층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감사원장 진덕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스님, 김대선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주낙길 천주교 글라렛선교수도회 원장 등 이웃 종교계 인사와 함께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서영교·박홍근·오영훈·이용선(이상 더불어민주당)·박성중(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원 스님이 화동에게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진산식에서 무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천태종 창종주인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고, 종단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실현을 통해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겠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공존할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다문화·다종교의 소통과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무원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하는 각계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부산 삼광사 주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무원 스님 덕분에 부산 불교가 많은 발전을 이뤘다"면서 "삼룡사도 큰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원 스님은 다문화가정·남북평화 문제 등 사회의 갈등을 화해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분"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묘적사로 기름 흘러… 사찰환경 수호"

주지 환풍 스님 등 17일 기자회견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을 비롯한 묘적사 신도대중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묘적사 측은 해당 사업부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묘적사를 싸고 흐르는 월문천에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환풍 스님은 "관음상이 있는 연못의 물고기와 개구리 등이 이미 모두 죽었다. 사찰 연못과 인근 하천에 기름이 뜨고 수위마저 저하되고 있다"며 "이 사업단지에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막대한 환경오염과 함께 사찰 수행환경 침해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는 60만평 규모로 루지 체험장 등 위락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단지와 묘적사의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한 상태다. 환풍 스님은 "사업 초기에는 묘적사 신도들인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도 관계되기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수행환경 침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祝 3세 종정 성우 자윤 스님 추대 취임"

제2014-36호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소속

대한 불교 원효종 (관등록번호 2151-0048)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 본점〉

종조 원효 성사

1세 종정 혜은 법홍 (열반)
2세 종정 요산 청암 (2012~ 2020)
3세 종정 성우 자윤 (2021~ 현재)

총무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광로 29-2(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전화 : (052) 238-8010 팩스 : (052) 238-701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